

나의 결핵 극복기

■
개

미안해 다음카페 [결핵을 이기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회원

■

5년 만에 재발한 결핵



KNTA November | December

2001년도에 결핵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엔 결핵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고, 병원만 가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병 즙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2003년 어느 날,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왔습니다. 기침을 하면 할수록 피가 계속 나오니 덜컥 겁이 나더군요. 지인을 통하여 마산결핵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약 처방을 받고 약을 먹은 지 한 달 만에 피가 멈추더군요. 죽기살기로 약을 먹었습니다. 정말 결핵 치료시에 먹는 약은 '죽기살기'로 먹는다는 말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초치료 6개월에 거의 완치되고 약을 종결하지만 저의 경우는 오른쪽 폐를 많이 다쳤기 때문에 공동이 있어서 1년 정도를 치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핵과의 인연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완치 판정 받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온 지 5년 여, 2009년 8월부터 약간씩 각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양이었고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각혈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10월 경부터는 아침마다 각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불안하고 겁이 났습니다. 기침도 한번 시작되면 멈추질 않으니 불안한 마음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해보니, 엑스레이 상에서도 객담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꾸 피가 난다고 하니 '결핵후유증'이지 재발은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10월부터는 계속된 잦은 각혈로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수시로 갔었고 입원도 했지만, 결핵후유증이라는 진단만 내려졌습니다. 저도 재발이 아니라 말을 믿고 싶었고, 그 사실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기관지검사까지 했는데 거기서도 균이 나오지 않았기에 행복했습니다. 당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만약 결핵이 재발 되었으면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기 싫었기에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미뤄왔었습니다.





보건소는 물론 대학병원에서까지 재발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청청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시로 응급실을 드나들던 저였는데, 올해 3월쯤 응급실 의사선생님으로부터 기관지내시경 배양에서 균이 검출되었으니 호흡기내과 담당선생님을 신속히 만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군요. 결핵으로 가슴 졸였던 시간들이 떠올라서였을까요?

호흡기내과를 찾았더니 선생님도 의아해하시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은 의사선생님은 그때서야 자료를 찾아보시더니 “그러네” 하시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맡은 환자의 상태를 그렇게 모를까, 그러고도 특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원망하는 마음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차라리 한 달 전, 아니 보름 전이라도 이야기를 해줬다면 결혼도 미루고 아기 갖는 것도 미웠을 겁니다.

기관지내시경 검사한 건 2009년 12월이고 제가 응급실 선생님께 전화를 받은 건 3월말이니 배양 2달을 잡더라도 충분한 시간인데, 2월에 진료 받을 때만 해도 ‘결핵후유증’이라고만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누굴 원망해도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마음을 다잡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재발이기 때문에 1년은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도 피가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3개월 정도 먹고 아산병원으로 옮겨서 3개월 더 먹고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간혹 각혈이 있지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약과의 씨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6시 50분에 약을 먹으면 11시까지 거의 시체놀이를 할 정도로 약에 취했습니다. 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각혈은 심적인 부담을 더했습니다. 밤이 되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들은 결핵에 걸려도 잘만 낫는 것 같은데, 하는 원망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살기 위해서 약을 먹고 점심이 지나서는 햇볕을 쬐며(결핵에 좋다고 해서) 매일 1시간씩 운동을 다녔습니다. 피부가 몰라보게 까매졌지만 사람들로 부터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들으

니 힘이 났습니다.

다시 찾아온 결핵은 제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늘 늦게 잠자리에 들던 저인데 이제는 밤 11시면 무조건 자고 아침에 7시에 기상하고 아침 식사 거르지 않고, 술과 담배는 일절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원래 술자리나 게임방 가는 것을 즐겼는데 담배나 술이 있는 곳까지 피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결핵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결핵에 대해 아는 정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처럼 어리고 철 모를 때 앓았던 결핵으로 다시 한 번 고생하는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요. 이젠 결핵과 안녕하고 2세를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힘 들어도 약 먹고 치료하다 보면 시간은 지나갑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지금을 회상하는 날도 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치료 개울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열심히 치료 받으시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